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바꾸기는 쉽게, 삶은 든든하게, 유연안정성(Flexicurity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1548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회사가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어도 곧 새 일을 구할 수 있고, 그동안 생활비와 교육이 보장된다면 직장을 옮기는 일이 그리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. 반대로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직장은 안정적이지만, 회사도 새 사람을 뽑기를 꺼려 일자리 문턱이 높아집니다. 이 두 걱정을 한꺼번에 풀어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. 그 이름이 바로 '유연안정성(Flexicurity)'입니다. 유연성을 뜻하는 영어 'flexibility'와 안정성을 뜻하는 'security'를 합친 말로, 기업이 사람을 쉽게 뽑고 내보낼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활을 지켜 주는 두터운 사회 보장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입니다. 이 말은 1990년대 덴마크의 사회민주당 출신 총리 포울 뉘루프 라스무센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유연안정성이 무엇을 지키려는 제도인지, 덴마크의 '황금 삼각형' 구조, 그 뿌리와 비용,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퍼진 과정과 이에 대한 비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유연함과 든든함을 함께 쥐는 제도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킨다는 발상 유연안정성의 핵심은 안정의 대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. 한 회사의 한 자리를 평생 지켜 주는 대신,